김 정 희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작품연구논문

손을 소재로 한 작품『소통』의 조형성 연구

- 본인의 작품을 중심으로 -

2005

성신여자대학교 조형대학원

조형예술학과 조각전공

송 미 선

손을 소재로 한 작품『소통』의 조형성 연구

- 본인의 작품을 중심으로 -

김 정 희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05년 5월

성신여자대학교 조형대학원

조형예술학과 조각전공

송 미 선

인 준 서

송미선의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_____ ㊞

심사위원_____ ㊞

심사위원_____ ㊞

2005년 6월

성신여자대학교 조형대학원

손을 소재로 한 작품 『소통』의 조형성 연구

송 미 선

김 정 희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작품연구논문

손을 소재로 한 작품『소통』의 조형성 연구

- 본인의 작품을 중심으로 -

2005

성신여자대학교 조형대학원

조형예술학과 조각전공

송 미 선

손을 소재로 한 작품『소통』의 조형성 연구

- 본인의 작품을 중심으로 -

김 정 희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05년 5월

성신여자대학교 조형대학원

조형예술학과 조각전공

송 미 선

인 준 서

송미선의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_____ ㊞

심사위원_____ ㊞

심사위원_____ ㊞

2005년 6월

성신여자대학교 조형대학원

논 문 개 요

본 논문은 석사청구 전으로 개최된 전시〈의사소통 communication〉연작 속에서 핵심 주제로 표현됐던 '손'에 관한 도구론적 혹은 의미론적 연구를 담고 있다.

이 전시에서는 제목 그대로, 자신의 생각 혹은 욕구를 타인에게 전달하거나, 타인과 교환 혹은 공유하고자 하는 인간의 의사소통에 관한 것이다.

의사소통의 매개체인 손은 조형문자의 형식으로 시각적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며, 언어, 문자, 기호를 제외하고 얼굴표정과 더불어 개인의 의사소통 과정에 사용되는 가장 효과적인 도구중 하나이다.

손에 대한 일차적 관심은 조각을 하는 본인의 경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며, 조각가에게 있어서 손은 창작의 일차적 도구이자 수단이다. 손에 대한 이차적 관심은 손이야말로 언어, 문자, 기호 등과 같이 문화적, 공간적 제약을 받지 않으면서 원시적이고도 자연스럽게 감성, 예술, 과학 등 다방면의 의사소통을 가능케 해주는 표현도구라는 사실이다.

본 논문은 의사소통이라는 주제를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하여 손을 선택한 이론적 배경에 대하여 논하고 다양한 형상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나타난 손의 도구적 가치와 의미들을 작품분석을 통해 제시하고자 한다.

서론에서는 소통을 주제로 한 연구목적 및 방법을 서술하였다.

본론에서는 〈의사소통 communication〉연작의 이론적 배경을 서술하고 본인 작품을 분석 하였다.

결론에서는 앞선 작품들이 표현하고자 하는 목적을 정리하고 앞으로 작업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모색하였다.

목 차

논 문 개 요

Ⅰ. 서 론 ····· 1

Ⅱ. 본 론 ····· 3

1. 이론적 배경 ····· 3

2. 작품 분석 ····· 6

Ⅲ. 결 론 ····· 18

참 고 문 헌

ABSTRACT

작 품 목 차

【작품 1】Communication , 혼합재료 25×50×30cm , 2004 ····· 8

【작품 2】Communication Ⅰ, 혼합재료 65×65×65cm , 2004 ····· 10

【작품 3】Communication Ⅱ, 혼합재료 800×150×30cm , 2004 ····· 12

【작품 4】Communication Ⅲ, 혼합재료 200×80×10cm , 2004 ····· 14

【작품 5】Communication Ⅳ, 브론즈 150×50×35cm , 2004 ····· 16

Ⅰ. 서 론

“인간(人間)이 ‘사람과 사람사이’를 의미하는 것처럼 인간은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으며(.....)”[1],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는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 BC 384～BC 322)의 언술처럼 인간은 하나 이상의 특정 조직에 소속되어 타인 또는 다른 집단과 상호작용을 하며 살아간다. 사회적 동물로서의 인간은 상호작용이라는 사회적 소통구조 속에서 어떻게든 자신을 드러내기를 원하며 그렇지 못하면 스스로가 소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도록 인간은 창조되었고 진화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현대인들은 사회적 일원으로서 주체적인 자신을 인식하기 위해서 끊임없는 소통을 원한다. 인간의 사회활동은 소통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으며, 소통 그 자체는 우리생활 속에 완전 용해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과정자체를 설명이 필요 없을 만큼 당연하고 단순한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본인은 이러한 소통의 개념을 작품의 주제로 표현하는데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어지는 손이라는 도구를 이용하여 소통의 의미를 예술적 표현을 통하여 재해석 하고자 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인체의 한 부분인 손을 소통의 매개체로 파악하고 손의 형태적 표현이 갖는 소통의 가능성과 상징적 의미 등을 작품으로 표현하여 제시한 ‘의사소통’연작들에 대한 작품주제와 제작방법 등을 분석하여 소통의 매체로서 손의 형태적 표현이 갖는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

1) 임종만, 윤천성 공저, 『인간관계의 이해』, 도서출판 청람, 2004, p.18.

이와 같은 근거에 의해 언어적 소통보다 유기적이며 표현가능성이 풍부한 비언어적인 이미지의 하나인 손의 제스처를 조형화하여 표현한 본인의 작품에 대해 서술하고자 한다.

Ⅱ. 본 론

1. 이론적 배경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자기의사를 표현하고자 한다. 신생아의 울음소리, 배냇짓, 아주 작은 몸짓, 손가락을 입에 무는 행위, 이런 표현들이 바로 인간 상호간의 관계를 형성하는 소통의 출발점이다. 아이는 처음 태어나면서 어머니와 소통하게 되고 가족, 친구 더 나아가 사회의 구성원이 되어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 다양한 소통의 과정들을 접하게 된다. 이렇듯 "소통은 흩어진 개인과 개인, 집단과 집단의 상호이해를 돕는 행위이며, 인간들 간에 의미를 공유하기 위해서 행해지는 의도적이고 상징적이며 상호 작용하는 과정이다."[2)]

현대사회를 살아가면서 우리들은 지금까지 많은 관계들 속에서 다양한 형식으로 타인에게 의사를 표현 혹은 전달하고자 하였다. 이런 타인과의 의사교환 과정에서 소통은 정확하게 이루어질 때도 있었지만 때론 그렇지 못한 경우도 여러 번 경험해 보았을 것이다. 개인적이고 자기중심적인 현대인은 소통의 오해와 단절에서 오는 외로움을 겪으며, 그 외로움을 타인과 공유하기 위해 안간힘을 쓴다.

이렇듯 서로의 의미를 공유하는 과정을 의사소통 이라하며, 의사소통에는 언어적 상징과 비언어적 상징으로 나누어지는데 언어적 상징이란 말과 글을 포함하며, 비언어적 상징이란 몸짓, 표정 등을 의미한다.

---

2) 강길호, 김현주 지음, 『커뮤니케이션과 인간』, 도서출판 한나래, 1995, p.27.

언어는 인간상호 간의 의사소통에 있어 가장 고전적이고 통상적인 수단이며, 복잡하고 난해하여 때로는 명확하지 않을 때도 있어 가장 보편적인 소통의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불안정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에 반해 비언어적 의사소통은 언어적 메시지를 대신하고 보완하며 메시지의 강조점을 드러내는 의사소통을 말한다. 비언어적 소통에는 신체언어, 접촉언어, 물리적·상징적 언어 등이 있다. 신체언어는 언어가 통하지 않는 외국인을 만났을 때 혹은 아이가 처음 태어나 언어를 알지 못했을 때 사용되는 의사소통이다. 신체언어에는 상대방의 얼굴을 통해 감정이나 기분상태를 가늠할 수 있는 얼굴표정, 사람의 인격과 관련된 의사소통인 목소리 또는 음성, 언어의 보조, 보강의 수단으로서의 눈짓, 손짓, 발짓, 몸짓 등을 의미하는 제스처 등 여러 가지가 있다.

신체언어로 의사소통이나 감정표현 같은 실용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는 손은 예로부터 상징적인 대상으로도 여겨져 왔다. 고대문명에서 지금까지 불교나 유대교 및 그리스도교의 종교의식에서 손의 갖는 상징적 의미는 매우 컸다.

불교에서 말하는 일탄지(一彈指)[3]는 영원을 상징하고, 그리스도교에서의 손은 기구(祈求)[4]의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 우리나라 민속에서도 손에 대해 여러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데, 오른손은 선(善)을, 왼손은 악(惡)을 상징한다고 믿어 거룩한 의식을 행할 때나, 악수를 청할 때, 술잔을 올릴 때 등과 같이 중요한 일에서는 왼손을 사용하지 않으며, 음식을 먹을 때에는 반드시 오른손을 사용해야 하는 등 손이 갖는 상징적 의미가 각 국가와 민족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나타난다.

---

3) 〈불교〉 손가락을 한 번 퉁기는 것만큼 짧은 시간, 김민수, 어효선 공편, 『새국어사전』, 교학사, 1987.

4) 〈기독〉 온 정신을 천주에게 집중시켜 기도하는 일, 김민수, 어효선 공편, 『새국어사전』, 교학사, 1987.

손을 이용한 수신호 등으로 작전지시를 하고 말로서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지 못하거나 수용하지 못하는 청각장애인들은 수화를 통해 의사소통을 하기도 한다.

손은 의식적인 손동작이나 표정 이외에도 인간은 말과 동시에 무의식적인 손동작을 하며 의사소통을 하는데, 이는 모두 손이 갖는 메시지를 시각화할 때, 단순한 손의 모습만이 아닌 개인의 주관적인 이념을 가지고 다양한 감정과 의미를 전달한다.

손은 다양한 제스처를 통해 인간의 마음의 내면을 전달하는 매개체로 사용되어왔고 인간의 손은 살아있는 무언(無言)의 언어인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언어적 소통이 갖는 기술적 한계를 발견하고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으며, 모든 인간이 공유할 수 있는 손의 제스처를 통해 손이 행하는 기능적인 측면과 언어로 표현될 수 없는 다양한 형태의 변화를 형상화하여 인간의 삶을 다양한 각도에서 조형화 하고자 하였다.

손은 이야기를 할 때에 "그 형태나 움직임을 변화시킴으로써, 곧 손의 제스처화에 의해서 많은 미세한 기분 변화를 전달"[5]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손은 인간의 다양한 모습들을 나타낼 수 있는 인체의 한 부분이며, 인간의 소통하고자 하는 욕망을 손의 제스처를 통해 표현하였다. 이는 소통하고자 하는 주체가 인간이며, 인체의 부위 중에 손은 관념이나 사고를 가장 직접적으로 표현할 수 있으며, 다양한 메시지를 줄 수 있는 매체이기 때문이다. 본인은 의사소통 하는 매체를 '손'으로 보았으며, 다양한 손의 동작들을 단순화시켜 표현하고자 하였다.

---

5) 데즈먼드 모리스 지음, 과학세대 옮김, 『맨 워칭 - 인간 행동을 관찰한다』, 도서출판 까치, 1994, p.38.

2. 작품 분석

〈의사소통 communication〉 연작에서 형상화된 손은 단순한 인체의 한 부분으로 머무르지 않고 생각과 느낌을 표현하고 전달 해 줄 수 있는 메신저의 역할을 그 속에 담고 있다. 이것은 본인의 작품이 단순히 손의 외형적인 모양이나 아름다움을 표현한 것이 아니고 인간의 주관적인 내면세계를 표현하는 매체로서 손의 모양과 가치를 다양한 제스처의 조각으로 형상화 한 것이다.

전체적으로 사용된 재료는 앙고라 털실, 브론즈이다. 작품에서 사용되어진 재료들은 각기 다른 이미지를 가지는데 앙고라 털실은, 길고 부드러운 토끼털이며, 촉감이 매끄러워 부드럽고 따뜻한 느낌을 준다. 그리고 브론즈는 상징화된 이미지를 강조하기 위해 사용되어졌다.

본인 작품의 재료로 사용되어진 털실은 의사소통의 불화와 단절에서 느껴지는 상처를 치유하는 의미에서 좀 더 부드럽고 따뜻한 느낌을 줄 수 있는 앙고라 털실을 사용하였다. 이는 소통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며, 현대사회의 대인관계를 이어주는 매개체라 할 수 있다.

작품에 나타난 표현방식은 털실을 한 올 한 올 연결하여 메리야스기법으로 뜨개질하였다. 이는 인터넷과 여러 전자매체의 보급발달로 모든 것이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매우 광범위하고 신속하게 소통되는 현대인들의 모습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대인관계의 소통하는 과정을 하나하나 수작업으로 떠 나아가 다양한 손의 형태로 전개 시켰으며, 조형화된 손들을 털실로 연결하여 같은 세계 안에서 서로에게 연결되어 관계를 맺고 있음을 나타내었다.

작품의 표현된 색상은 대인관계에 있어 평화로움과 편안한 느낌을 줄 수 있고

내면적인 정화를 도와주며, 포괄적인 보호를 의미하는 흰색을 사용하였으며, 차분하고 편안한 느낌을 줄 수 있도록 6단계의 파란색으로 표현하였다. 6가지 단계별로 염색되어진 파란색 앙고라 털실은 현대인들의 대인관계에 있어 서로 소통되어져 친밀감이 조성되어지는 과정을 나타내고자 하였으며, 이들의 소통하는 이미지를 시각적으로 구체화하기 위하여 뜨개질 기법을 사용하였다.

【작품 1】Communication, 혼합재료, 25×50×30cm, 2004

【작품 1】Communication

제작연도 : 2004

재　　료 : 담당사, 솜, 철사

크　　기 : 25×50×30cm

제작방법 : 하늘색(powderblue) 담당사로 코바늘뜨기하여 장갑을 뜬 후 입체감을 살려주기 위해서 장갑 안에 솜을 넣어 제작하였다. 손의 모양을 고정하기 위해서 철사를 사용하였으며, 못으로 벽면에 고정시켰다.

손은 다양한 제스처를 통해 인간의 내면을 전달하는 매개체라 할 수 있다. 본 작품은 언어적 의사소통에서 오는 한계를 극복하고자, 언어로서 표현되지 못하는 부분까지도 표현할 수 있는 몸짓 언어인 손의 제스처를 통하여 조형화한 작품이다. 벽면에서 돌출되어진 두 손은 같은 공간 안에서 서로 마주보고 대화를 나누며 소통하는 현대인들의 모습을 형상화한 것이다. 평화로운 소통을 하고자 하는 현대인들의 욕망을 하늘색채로 표현하였고, 사회구성원간의 연결성을 강조하고자 뜨개질하였다.

【작품 2】Communication Ⅰ, 혼합재료, 65×65×65cm, 2004

【작품 2】Communication Ⅰ

제작연도 : 2004

재　　료 : 앙고라 털실, 솜, 비치볼

크　　기 : 65×65×65cm

제작방법 : 앙고라 털실을 대바늘을 사용하여 원형이 되도록 코를 늘려가며 메리야스뜨기 한다. 무게감을 제거하고자 안에는 비치볼을 사용하였으며, 구는 반쪽씩 떠 나아가 중간을 돗바늘로 꿰매어 연결하였다. 만들어진 구위에 대바늘로 짜여진 다양한 제스처의 장갑을 꿰매어 부착하였다.

사람은 누구나 각종 공동체를 구성하면서 살게 마련이고 남과 더불어 사회생활을 해나가기 위해서는 구성원간의 소통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부드럽고 따뜻한 느낌을 강조하기 위해서 앙고라 털실로 뜨개질하여 제작되어진 동그란 구는 각종 공동체를 표현할 수 있는 지구를 의미하며, 평화로움과 편안함 느낌을 주고자 흰색 앙고라 털실을 사용하였다. 마주보며 대화하는 모습을 표현한 손 , 상징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손, 등 이들은 각기 다른 구성원간의 소통하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작품 3】Communication Ⅱ, 혼합재료, 800×150×30cm, 2004

【작품 3】Communication Ⅱ

제작연도 : 2004

재　　료 : 앙고라 털실, 솜, 아크릴, 고무줄, 산성염료

크　　기 : 800×150×30cm

제작방법 : 앙고라 털실을 대바늘을 사용하여 메리야스뜨기로 장갑을 뜬다. 뜨개질한 장갑을 산성염료를 사용해 6단계의 파란색으로 염색한다. 염색과정은 물에 산성염료와 촉염제를 각각 비율에 맞추어 개어놓고 물에 희석시킨 후 80°c로 가열한다. 가열된 염료액에 실을 넣고 염색이 골고루 나올 수 있도록 손으로 잘 저어준다. 15분 후 80°c로 가열하여 15분 염색 후 찬물에 헹구어준다. 염색되어진 장갑에 솜을 채워 넣어 입체감을 살려주고 벽에 고정시키기 위해 손목부분에 원형 아크릴을 넣고 고무줄로 묶어주었다.

사람마다 서로 다른 개성과 성격을 가지고 있듯이 개개인의 차별화 된 다양한 모습들을 표현하고자 각기 다른 제스처의 손으로 조형화한 작품이다. 작품에 표현된 흰색은 평화로움과 편안한 느낌을 주고 포괄적인 보호를 내포하고 있으며 파란색은 편안한 느낌을 나타내고자 하였다. 색의 농도가 점점 진하게 전이되어 표현된 6단계의 파란색은 손의 제스처를 통하여 현대인들의 소통되어지는 과정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인터넷과 전자매체의 보급발달로 모든 것이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소통하는 현대인들의 모습을 표현하고자 털실을 한 코 한 코 씩 연결하여 떠 나아가 손을 형상화하였으며, 이렇게 제작되어진 손을 하나씩 실로 연결하여 현대사회 속에서 실타래처럼 엉켜 소통하는 모습을 형상화하였다.

【작품 4】Communication Ⅲ, 혼합재료, 200×80×10cm, 2004

【작품 4 】Communication Ⅲ

제작연도 : 2004

재　　료 : 앙고라 털실, 솜, 산성염료

크　　기 : 200×80×10cm

제작방법 : 흰색 앙고라 털실을 대바늘을 사용하여 메리야스뜨기로 장갑을 뜨고 산성염료로 염색한 6단계의 파란색 앙고라 털실을 28cm간격으로 색깔을 바꾸어 단계별로 메리야스뜨기 한다. 입체감을 주기 위해서 장갑 안에 솜을 넣어 제작하였다.

우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인관계에 있어 처음 만나 인사를 나눌 때 악수를 청하거나 손을 먼저 내미는 모습을 주위에서 자주 볼 수 있다. 양쪽으로 펼쳐져 뻗어 나가는 두 손은 자신이 먼저 상대방에게 다가가 무엇인가를 함께 공유하고 소통하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을 표현한 것이다. 상대방을 배려하고, 평화로운 마음으로 소통 하고자는 현대인들의 모습을 부드러운 곡선으로 표현하였으며, 대인간의 소통이 이루어져 점차 친밀해지는 과정을 파란색을 사용하여 6단계로 나타내었다.

【작품 5】Communication Ⅳ, 브론즈, 150×50×35cm, 2004

【작품 5】Communication Ⅳ

제작연도 : 2004

재　　료 : 브론즈

크　　기 : 150×50×35cm

제작방법 : 앙고라 털실을 대바늘을 사용하여 메리야스뜨기로 장갑을 뜬 후, 입체감을 주기 위하여 장갑 안에 솜을 넣어 브론즈로 제작하였다.

앞선 작품들이 언어적 의사소통에서 오는 한계를 극복하고자, 언어로서 표현되지 못하는 부분까지도 표현할 수 있는 손의 제스처를 작품화하였다면, 본 작품은 사회성이 강조되는 농아자들의 의사소통하는 방법인 수화(手話)의 상징성을 조형적으로 표현하여 관람객과 조각 사이의 소통을 시도하고자 하였다. 손의 제스처마다 상징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이러한 이미지를 강조하고자 브론즈로 제작하였다.

Ⅲ. 결 론

인간의 삶은 고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으며, 사회와의 상호적인 연관성에서 지속되어진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는 말과 같이 사회 속에서의 소통이란 욕구를 가지고 자신을 사회에서 구체화시키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인 것이다.

본 논문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언어폭력, 정보의 홍수, 매스미디어의 횡포가 난무하는 속에서 잊혀져가고 매몰되어져 가는 현대인들의 소통하는 모습을 신체언어인 손의 제스처를 통하여 형상화하고 조형화한 본인 작품 〈의사소통 communication〉에 관한 연구이다.

본 연구를 통하여 현대인들의 소통에 대한 시각적 표현의 가능성을 ‘손의 제스처’를 통해 나타내보고자 하였다. 손의 제스처를 통한 표현은 언어소통의 한계를 극복하게 해주었으며 새로운 표현의 가능성을 탐색하게 하였다.

본인은 인간사회에서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매우 광범위하게 소통하는 대인간의 모습을 표현하고자 따뜻한 느낌을 주는 재료인 앙고라 털실을 사용하여 손을 조형화 하였고, 소통과 손의 연관성을 다양한 조형적인 언어로 표현하였다.

재료 그리고 주제로서 손이 갖는 다양한 형상과 의미는 그 속에 무한한 조형 가능성을 지니고 있으며, 모든 형식의 소통을 가능케 하는 매개체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 본인은 앞으로 끊임없이 여러 가지 조형원리를 이용한 손의 형태를 표현함으로써 나, 타인, 그리고 사회에 새로운 소통의 가능성을 시각적인 표현을 통해 제시하고자 한다.

참 고 문 헌

강길호, 김현주, 『커뮤니케이션과 인간』, 도서출판 한나래, 2000.

고영복 편, 『현대사회론』, 사회문화 연구소 출판부, 1991.

김종재, 『현대사회와 인간관계』, 박영사, 1993.

김혜숙, 김혜련 지음, 『예술과 사상』,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98.

데즈먼드 모리스 지음, 과학세대 옮김, 『맨워칭-인간 행동을 관찰한다』, 도서출판 까치, 1994.

마틴 바인만 지음, 박규호 옮김, 『손이 지배하는 세상』, 해바라기, 2002.

사르트르 지음, 양원달 옮김, 『존재와 무』, 을유문화사, 1994.

심윤종, 『현대사회와 인간』, 지학사, 1985.

양건열 편역, 『예술 사회학의 이론과 전개』, 미진사, 1990.

이재창, 임용자 지음, 『인간관계론』, 문음사, 2000.

임종만 지음, 『인간관계의 이해』, 청람, 2004.

장영란 지음, 『아리스토텔레스의 인식론』, 서광사, 2000.

조정혁, 『커뮤니케이션학-이론과 관점』, 세명사, 1994.

존 네이피어 지음, 이민아 옮김, 『손의 신비』, 지호, 1999.

진 시겔 지음, 양현미 옮김, 『현대미술의 변명』, 시각과 언어, 1997.

ABSTRACT

A Study on the Plastic, Nature of understanding of Work Which makeshand as material

Song, Mi Sun
Majored in Sculpture
Graduate School of Plastic Arts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is is a study on hands that can be found in a series of Communication, the exhibition held for a master's degree. As can be seen from the title, a series of works manufactured with the theme of communication in 2004 are on communication between individuals who wish to convey their ideas to others continuously. To shape them, I used hands, which can deliver one's own ideas, feelings, and emotions with various gestures, among parts of the body.

In the human body, a hand is an effective part to convey diverse individualities, facial expressions, and ideas.

Concerns about hands primarily originate in my own experiences of sculptural art. A sculptor's hands are the primary means in the process of manufacturing works, which are the results produced by the hands. Another thing communicated through the medium of hands may be the universal

language which fails to belong to a specific place, or country, contrary to general languages. This is similar to art which is so accessible to people regardless of times or national boundaries. In addition to this meaning, hands have great potentials for visual expression through changes in size or shape in a formative aspect.

This study intends to explain the background in selecting hands to express this exhibition called Communication effectively and the process of approaching the theme in a formative way.

Chapter 1, Introduction, describes goals and methods of the study with the theme of communication.

Chapter 2, Main Discourse, describes the theoretical background in manufacturing a series of Communication, explains methods to manufacture my works, and analyzes the works.

Chapter 3, Conclusion, summarizes goals of the works and suggests the future course of my works.